

《金匱要略》중桔梗이 사용된 處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朴相萊 · 金東熙 · 金聖勳*

I. 緒 論

《金匱要略》은 東漢의 張仲景이 著述한 中國에 現存하는 雜病研究의 專門書 가운데 가장 오래된 冊으로, 戰亂시 消失되었다가 北宋의 翰林學士 王洙가 翰林院에 保存되어 있던 《金匱玉函要略方》을 發見하여 林億 등이 雜病 및 婦人病 治療部分만을 拔萃, 編纂한 것이 現在 流通되고 있는 《金匱要略方論》이다¹⁾.

《金匱要略》에 記載된 藥物에 對해 살펴보면, 染療方 三篇을 除外하고 모두 156가지의 藥物이 사용되었는데, 清熱藥 24種, 補益藥 22種, 化痰止咳平喘藥 14種, 解表藥 12種 등 順으로 多用되었다²⁾.

그 중 化痰止咳平喘藥인 桔梗은 桔梗科에 屬한 多年生 草本인 도라지의 뿌리를 乾燥한 것으로³⁾, 《金匱要略》<中風歷節>, <血痺虛勞>, <肺痿肺癰咳嗽上氣>, <瘡癰腸癰浸淫>, <婦人產後>의 다섯 篇 中에서 모두 7개 處方에 사용되었다.

桔梗은 《神農本草經》⁴⁾에 “辛微溫, 主胸脇痛如刀刺, 腹滿腸鳴幽幽, 驚恐悸氣”라 記載된 後, 咳嗽痰多, 胸悶不脹, 咽痛音啞, 肺癰吐膿, 瘡瘍膿成不潰 등의 治療에 應用되고 있으며³⁾, 桔梗의 實驗的 研究로 李⁵⁾는 桔梗의 規格화와 Platycodin D의 藥效에 對하여, 金³²⁾은 精油成分에 關하여, 辛³³⁾은 桔梗의 種類에 따른 saponin 含量差異에 關하여 報告하였다. 또한 韓³⁴⁾과 李³⁵⁾는 桔梗湯, 千金葦莖湯 加味方, 加味桔梗湯 등 桔梗이 들어간 處方들의 抗癌效果와 免疫增強作用에 對하여 研究하였다.

이에 著者는 桔梗의 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後世方의 根幹이 되는 《金匱要略》중 桔梗이 사용된 侯氏黑散 薯蕷丸 桔梗湯 桔梗白散, 排膿散, 排膿湯, 竹葉湯 7개 處方의 病證 및 桔梗의 效能을 病理的으로 鑑別하여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侯氏黑散(中風歷節病脈證治第五)⁶⁻³¹⁾

【原文】 治大風四肢煩重, 心中惡寒不足者.

【方組】 菊花四十分, 白朮十分, 細辛三分, 茯苓三分, 牡蠣三分, 桔梗八分, 防風十分, 人蔘三分, 礬石三分, 黃芩五分, 當歸三分, 乾薑三分, 川芎三分, 桂枝三分

【功效】 除濕蠲痹, 散風活絡

【主治】 中風, 惡寒發熱, 頭痛目眩, 肢體酸重, 麻木不仁, 手足不遂, 言語蹇澁, 脈浮弦而滑者.

【選注】

○ 徐忠可 : 此爲中風家挾寒而未發熱者治法之準則也. 謂風從外入來寒作勢, 此爲大風, 證見四肢煩重, 豈非四肢爲諸陽之本, 爲邪所痺而陽氣不運乎. 然但見于四肢, 又獨愈體重不勝乎. 證又見心中惡寒不足, 豈非漸欲凌心乎. 然燥熱獨未乘心, 不獨愈于不識人乎. 故侯氏黑散用蔘, 苓, 歸, 窮補氣血爲君, 菊花, 白朮, 牡蠣養肝脾腎爲臣, 而加防風, 桂枝以行痺着之氣, 細辛, 乾薑以驅內伏之寒, 兼桔梗, 黃芩以開提肺熱爲佐, 礬石所至祛濕解毒, 收澁心氣, 酒力運行周身爲使, 庶舊風盡出, 新風不受.

○ 沈明宗 : 直侵肌肉臟腑, 故爲大風, 邪困于脾,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則四肢煩重，陽氣虛而風未化熱，則心中惡寒不足，故用蔘，朮，茯苓健脾安土，芎藭宣血養血爲助，桂枝引導諸藥而開痺着，以礬石化痰除濕，牡蠣收陰養正，桔梗開提邪氣，而使大氣得轉，風邪得去，黃芩專清風化之熱，細辛祛風而通心腎之氣相交，以酒引群藥到周身經絡爲使也。

○丹波元簡：此主療文法，與前後諸條異…。然東源寒食散發候云，仲景經有候氏黑散，外臺風癩門載本方，引古今綠驗，無桔梗，有鐘乳，礬石。方後云，張仲景此方，更有桔梗八分，無鐘乳，礬石，乃知此方，隋唐之人以爲仲景方，則非宋人所附較然矣。

【病因·病機】

本方은 中風挾寒의 證治이다. 大風은 극렬한 邪風을 말한다. 風寒의 邪가 臟腑에 直中한 病이다. 四肢는 諸陽의 本이 되므로 中陽이 不運하고, 風寒의 邪로 因해 痺가 되고, 邪氣가 痺를 困케하는 卽 四肢煩重하게 된다. 中陽不足하면 惡寒하며 不足은 中氣가 虛한 것을 가리킨다. 本方은 中焦陽虛時 挾風寒한 것을 치료한다. 또 本方은 大風四肢煩重, 心中惡寒不足者를 치료한다. 이는 脾虛生痰하여 痰濁이 風邪를 받아 清竅를 上侵하여 鼓動하는 所致이다. 本方은 益氣健脾, 清肝散風을 하는 기초 위에 礬石을 加하면 降氣化痰하여 痰少하여져 眩한 증상이 스스로 그친다. 本方은 礬石이 痰濁上蒙하여 心律失常되는 一體의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提示하여준다.

本 처방 중 대량의 菊花를 쓴 것은 祛風清熱함 이니, 君藥으로 삼아 《本經》⁴⁾에서 말하는 “主風, 頭眩腫痛, 目欲脫, 淚出”에 쓰고; 防風으로 臣을 삼아 《本經》⁴⁾의 “主大風, 頭眩痛, 惡風, 風邪, 目盲無所見”이라 하는데 쓴다. 菊花와 防風을 配伍하면 表裏의 風을 驅하는데 좋다. 모든 病은 胃氣가 本이 되니, 邪氣가 溲하면 氣가 반드시 虛해지니, 人蔘과 茯苓을 佐로 삼아 益氣健脾하고 土의 氣를 增倍시킨다.; 風氣는 肝에 通하니 當歸, 川芎을 사용하여 益肝血하여 肝氣를 不足하지 않게 한다.; 氣虛濕勝하면 반드시 生痰하니 白朮로 益氣祛濕하고, 桔梗으로 開閉祛痰하고, 礬石으로 善化風痰한다. 風이란 先行而數變하고 來寒하고 來熱하니, 故로 桂枝, 乾薑, 細辛을 써서 祛寒하고, 黃芩

으로 清熱하고, 牡蠣로 潛陽하고, 溫酒를 使로 삼아 이 모든 藥을 周身經絡에 達하게 한다. 모든 魚肉과 마늘을 禁하게 하니 熱과 함께 動風함을 꺼리기 때문이다.

總括하면, 本方은 祛風, 除熱, 補虛, 下痰의 法으로 大風을 억제하는데 타당하다. 故로 “治大風, 四肢煩重, 心中惡寒不足者”에 필요한 處方이다.

薯蕷丸(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⁶⁻³¹⁾

【原文】虛勞諸不足，風氣百疾，薯蕷丸主之。

【方組】薯蕷三十分，當歸，桂枝，神曲，乾地黄，大豆黃卷各十分，甘草二十八分，人蔘七分，川芎，芍藥，白朮，麥門冬，杏仁各六分，柴胡，桔梗，茯苓各五分，阿膠七分，乾薑三分，白斂二分，防風六分，大棗百條

【功效】健脾益氣，消風散邪

【主治】虛勞，氣血俱虛，陰陽失調，外兼風邪。症見頭暈目眩，納食減少，全身乏力，心悸短氣，自汗咳嗽，腰背強痛，肌肉消瘦，微有寒熱，骨節痠痛，肌膚麻木，舌苔薄，脈虛弱。

【選注】

○徐忠可：此不專言裏急，是內外皆見不足證，非獨裏急諸不足也。然較黃芪建中湯證，前是云裏急，故建中，而此多風氣百疾，卽以薯蕷丸主之，豈非此丸似專爲風氣乎。不知虛勞證，多有風氣者，正不可着意治風氣，故仲景以四君，四物養氣血，麥冬，阿膠，乾薑，大棗補氣脾胃，以桔梗，杏仁開提肺氣，桂枝行陽，防風運脾，神麴開鬱，豆黃卷宣腎，柴胡升少陽之氣，白斂化入營之風。雖有風氣，未嘗專治之，謂正氣運而風氣自去也。薯蕷最多，且以此湯名者，取其不寒不熱，不燥不滑，脾胃兼宜，故以爲君，則諸藥相助爲理耳。

○魏念庭：蓋人之氣在肺，元陽在腎，概削消則難于遵復矣，全賴後天之穀氣自益氣生，是營衛非脾胃不能通宣，而氣血非飲食無由乾復也。仲景故爲虛勞諸不足而帶風氣百疾立此方，以薯蕷爲主，專理脾胃，上損下損，至此可以撐持。以人蔘，白朮，乾薑，茯苓，豆黃卷，大棗，神麴，甘草助之，除濕益氣，而中土之令得行矣。以當歸，芎藭，芍藥，地黄，麥門冬，阿膠養血滋陰，以柴胡桂枝防風升邪散熱；以杏仁，

桔梗, 白薇下氣開鬱. 惟恐虛而有熱之人, 滋補之藥, 上拒不受, 故爲散其邪熱, 開其逆鬱, 而氣血平順, 補益得納, 勿以其迂緩而舍之.

【病因·病機】

本方은 氣血이 不足한데에 風邪를 겸한 虛勞者의 不足症狀을 治한다. 虛勞한 사람은 모든 脈이 空虛하고 쉽게 風邪의 侵犯을 받는다. 이른바 ‘風氣百疾’은 一切의 風氣로 인해 생긴 病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風은 百病의 長이 되어 쉽게 行하고 자주 變하므로 여러 종류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다. 病은 者는 體虛하여 風邪가 腦로 침입하면 頭目眩暈이 나타나니 이것이 古典에 말한 ‘風眩’이다. 風邪가 支節百骸, 經絡에 侵襲하면 骨指痛麻木하고 腰背強痛하게 되니 이것이 古典에 칭한 바 ‘風痺’이다. 脾胃가 虛弱하여 小食하고 잘 消化시키지 못한 즉 肌瘦가 된다. 氣血이 虛損되면 온몸이 힘이 없고 心悸, 氣短, 自汗하여 잠을 잘 못잔다.

虛勞不足에 風氣를 낀 사람은 단순히 培保할 수 만은 없으니 그러면 邪氣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서 去風시키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精氣를 거둬 傷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薯蕷丸을 써서 補로 主를 삼고 補하면서 散하여 邪氣를 除去하고 精氣를 회복시키는 것이니 이른바 ‘扶正祛邪’가 이것이다.

薯蕷丸이 補精을 하는 것은 脾胃를 調補하는 것으로 主를 삼는다. 脾胃가 虧損되면 氣血生化之源이 不足해지게 되고 虛損되면 다 치할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脾胃를 調理하고 더욱 營養하는 것이 虛勞病을 治療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方 中에 중요하게 사용한 薯蕷는 일명 山藥이라고 하니 味甘性平하여 脾胃를 보하고 虛損을 보한다. 《本經》⁴⁾에는 ‘中을 傷한 것을 主하고 虛飢한 것을 補하고 寒熱邪氣를 제하고 補中하며 氣力을 더해주고 長肌肉하며 飲을 強하게 해준다.’라고 되어있다. 또 神曲과 大豆黃卷은 다른 藥을 보조하여 補함과 동시에 消하는 작용도 있으니 補藥이 胃에 障碍를 일으키지 않도록하여 生化之源인 脾胃機能을 강하게 해준다. 地黃, 白芍藥, 當歸, 川芎, 麥門冬, 阿膠는 滋陰養血하고, 補氣藥과 配伍하

면 桂枝, 柴胡, 防風, 白薇 등은 升陽達表와 驅除 風氣를 목적으로 한다. 杏仁, 桔梗은 氣의 升降作用을 돕는다. 大棗는 養胃生津하며 자주 복용하는 것은 약세를 따라 돕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本方은 調理脾胃하고 氣血을 모두 補하여 內外因이 함께 있는 證을 治하는 組方이라 할 수 있다. 후세 의 健脾胃하고 補氣하는 諸方이 다 이를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總括하면 本方의 치료원칙은 脾胃를 調理하는 것이니 脾胃가 健運되면 氣血이 왕성하게 되고 五臟六腑를 滋養하니 精氣가 充滿해지고 病에 대한 抵抗力이 강해져서 外邪가 쉽게 침범하지 못한다. 이것이 本方을 오래도록 낫지 않는 虛損疾患에 쓰 는 이유이다.

桔梗湯(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第七)⁶⁻³¹⁾

【原文】

咳而胸滿, 振寒脈數, 咽乾不渴, 時出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爲肺癰, 桔梗湯主之.

【方組】桔梗一兩, 甘草二兩

【功效】清熱解毒, 消腫排膿; 養陰利咽

【主治】本方概治肺癰已成者, 又治少陰咽痛.

主症 : 肺癰, 咯血膿血, 狀如米粥, 腥臭胸痛, 氣喘身熱, 煩渴喜飲, 舌苔黃膩, 舌質紅, 脈象滑數.

副症 : 咽乾腫痛, 飲食不利, 口噤難言, 痰涎壅塞, 小便黃而量少; 甚則喘不得臥, 面赤身熱.

【選注】

○ 徐彬 : “此乃肺癰已成, 所謂熱過于榮, 吸而不出, 邪熱結于肺之營分, 故以苦梗下其結熱, 開提肺氣, 生甘草以清熱解毒. 此亦開痺之法, 故又注曰: 再服, 則吐膿血也”.

○ 吳謙 : “咳而胸滿, 振寒脈數, 咽乾不渴, 時出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此爲肺癰證也. 肺癰尙未成膿, 實邪也, 故以葶藶之劑瀉之; 今已潰後, 虛邪也, 故以桔梗之苦, 甘草之甘, 解肺毒排癰膿也. 此治已成肺癰, 輕而不死者之法也.”

○ 尤怡 : “此條見證, 具如前第二條所云, 乃肺癰之證也. 此病爲風熱所壅, 故以苦梗開之, 熱聚則成毒, 故以甘草解之, 以甘培于苦, 其力似乎太緩, 意者癰膿已成, 正傷毒潰之時, 有非峻劑所可排擊者,

故藥不嫌輕耳。”

【病因·病機】

本方は肺癰으로膿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所謂“潰膿期” 또는 “肺癰後期”를 위한 것으로,病機는熱傷營血하고熱壅肺潰로病이比較的甚重하여正氣가邪氣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므로“吸而不出”이라 일컫는다. 나타나는證狀은“口中舌燥,咳即胸中隱隱痛,咯吐膿血,或形如米粥,腥臭膿痰,振寒脈數”등이다.

發熱이 壅閉하여肺氣가不利한 즉“咳而胸滿”하니 이것은肺癰의 주된證狀 중 하나이다.邪熱이血脈을傷한즉“振寒脈數,咽乾不渴”하는데 이는陽이裏에鬱하여衛氣가不行하고正邪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이른바“陽爲陰閉也”이다. 즉本方은 곧膿膿期에膿成하여장차潰하려하거나 이미潰하고,正氣가 이미 손상되었으므로解毒扶正의法을 쓰는 시기이다.本方의桔梗은肺에入하여肺氣를提하고癰膿을排出한다.生甘草를培로 사용하여清火解毒하여癰膿이再發하는 것을防止한다. 이 두 가지는相伍關係로養陰利咽하고宣氣去腐하므로服用後에 빠르게膿血을排出하므로方後註에 이르기를“再服,即吐膿血也”라 하였는데 이는疾病이 나으려고 하는 것이다.

桔梗白散(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第七)⁶⁻³¹⁾

【原文】咳而胸滿,振寒脈數,咽乾不渴,時出濁唾腥臭,久久吐膿如米粥者,爲肺癰.

【方組】桔梗三分,巴豆一分(去皮心,熬黑,研如脂),貝母三分

【功效】攻逐水飲,溫下寒實

【主治】

主症:肺癰重症屬寒實者,症見咳嗽,咯吐濁唾腥臭之痰,胸脇心下硬滿而痛,拒按,呼吸不利,不大便,不發熱,不口渴,不煩燥,舌苔白滑,脈沈遲或沈緊.

副症:胸膈滿悶,惡寒身痛,或咳吐膿粘臭痰.

【選注】

○徐忠可:此即前桔梗湯證也.然此以貝母巴豆湯去甘草,則迅利極矣.蓋此等證危在呼吸,以悠忽遺程不可勝數,故確見人強或證危.正當以此急救之.

不得嫌其峻,坐以待斃也.

○沈明宗:桔梗開提肺氣,貝母清熱而化痰涎,巴霜峻猛烈劑,急破其痛,驅膿下出.

【病因·病機】

本方は濕熱火毒肺癰을 치료하니表寒이 풀리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水寒과 서로 결합해內實을 이룬證治이다.本方은桔梗湯과 症狀은 같으나處方은 다르다.後者는肺癰輕症을 치료하고本方은肺癰重症을 치료한다.寒痰冷飲이肺에壅滯하여日久하면熱로化하여氣血을腐潰시키니胸滿隱痛,咳嗽吐黃痰腥臭,久久吐膿如米粥이 나타나고肺癰을 이룬다.膿이 안에서盛하면毒氣가 밖으로 나타나니振寒脈數하고,寒痰의邪가津液이 퍼지지 못하게 하니咽乾不渴한다. 따라서本方은瀉痰排膿하는 것이다.方中の貝母는清熱化痰解毒하고巴豆의氣味는辛熱하니破結排膿,驅毒外出하고,桔梗은開提肺氣하고載藥上行하여胸膈의毒을驅盡한다. 따라서本方은邪盛氣實의肺癰重症에 사용한다.

排膿散(瘡癰腸癰浸淫病脈證證治第十八)⁶⁻³¹⁾

【原文·方組】

排膿散方:枳實十六枚,芍藥六分,桔梗二分

【功效】排膿化毒

【主治】內癰,肝癰,肺癰,胃癰,腸癰,膿將成未成者,胸脇脹悶,疼痛拒按,或咯吐膿血或便膿血.

【選注】

○魏念庭:排膿散爲瘡癰將成未成,治里之法也.

○尤怡:枳實苦寒,除熱破滯爲君,得芍藥則通血,得桔梗則利氣,尤懶鷄子黃之甘潤,以爲排膿化毒之本也.

○黃樹曾:夫氣行則水行,水行則膿盡,故排膿必用桔梗開利其氣以行其水,并佐枳殼爲之助.因膿由血化,故兼利血,而用芍藥,惟血既腐化而成膿,則去血必多,爰一面排膿以去其氣分之實,一面用鷄子黃以補其血分之虛.

【病因·病機】

本方は瘡癰膿將成未成者를治療한다.本方의證은熱毒瘀滯가一處에聚해서氣血이不通하여熱鬱血瘀하고蒸腐血肉하여膿이成하지 않은 것

으로 熱毒이 比較的 成한 證이다. 故로 本方을 使用하여 排膿化毒한다. 大개 氣行하면 血活하고 血行하면 膿不留하며 養血하면 生肌하고 新肉하면 腐肉去한다. 腐去하고 膿消하면 瘡癰이 스스로 낫는다.

方中の 枳實은 苦寒하여 利氣逐滯하는 故로 鬱熱을 除하는 主藥이며; 桔梗은 肺氣를 開提하여 排膿하여 二味가 相互 配伍하여 氣分의 滯를 行함으로써 排膿을 促進하고; 芍藥은 血脈을 通하고 血痺를 除하고; 鷄子黃은 甘潤하며 護陰滋血한다. 諸味는 相互 協助하여 排膿化毒의 效를 다한다.

總括하면 本方은 排膿化毒의 方劑이며 瘡癰膿이 將成未成한 者에 使用한다.

排膿湯(瘡癰腸癰浸淫病脈證證治第十八)⁶⁻³¹⁾

【原文·方組】

排膿湯方：甘草 2兩, 桔梗 3兩 生薑 1兩 大棗 10枚

【功效】 清熱解毒, 消腫排膿

【主治】

1. 主症：肺癰, 喉癰, 喉痹, 膿成初潰, 咯吐膿血腥臭, 或咯血, 氣滯, 惡寒身熱, 煩渴喜飲, 舌質微洪, 苔白薄 或 黃薄, 脈數.

2. 副症：蒂丁兩側腫癰, 飲食不利, 口噤難言, 痰涎壅塞, 甚則喘息不得臥, 面赤.

【選注】

○ 魏念庭：排膿湯一方, 尤爲緩治, 蓋上部咽喉之間有欲成瘡癰之機, 卽當急服也. 甘草桔梗, 卽桔梗湯, 已見用肺癰病中. 加以生薑大棗以固胃氣, 正盛而邪火斯易解散也. 瘡癰未成者, 服之則可開解; 已成者, 服之則可吐膿血而愈矣.

○ 徐彬：甘桔以開其肺氣, 薑棗以和中上焦之營衛, 使內氣通利, 而膿不凝也. 以上兩方, 乃爲瘡癰不能散者概治之方, 不獨爲腸癰腫癰沒也.

○ 黃樹曾：按排膿散, 卽枳實芍藥散加桔梗鷄子黃; 排膿湯, 卽桔梗湯加薑棗, 二方除桔梗外, 無一味同, 皆以排膿名, 可見桔梗爲排膿之要藥.

【病因·病理】

本方은 內癰 膿成初潰의 症狀을 治療한다. 本方은 原文主證은 없다. 方으로 症狀을 推測하면 內

癰 膿成初潰에 使用한다. 血敗肉腐하고 癰膿初潰 外泄하고 咯吐膿血腥臭하며; 熱毒瘀結, 肺損絡傷하는 故로 때때로 咯血하고; 膿毒蘊肺, 肺氣不利하는 故로 喘息不得臥하며; 熱毒內蒸하는 故로 身熱하고 赤하며 煩渴喜飲한다.

上述한 것을 綜合하면 本方은 內癰膿成初潰에 사용하는 故로 治하는 것은 排膿解毒을 治法으로 한다. 膿이 이미 形成되던 마땅히 排膿이 要旨가 되며 이때가 治療의 關鍵이며 膿液을 일찍 排除하여야 한다. 同時에 熱毒이 盛하면 주의해서 解毒해야 한다.

方中에 桔梗, 甘草는 桔梗湯이 된다. 甘草는 清熱瀉火解毒, 緩急迫하고; 桔梗은 宣肺利氣排膿하며; 薑棗는 調和胃氣하여 營衛를 調和한다. 四味는 相伍 配伍하므로써 清熱解毒하여 排膿去癰한다.

總括하면 本方은 內癰膿初成의 方劑가 된다.

竹葉湯(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一)⁶⁻³¹⁾

【原文】 產後中風, 發熱, 面正赤, 喘而頭痛, 竹葉湯主之.

【方組】 竹葉一把, 葛根三兩, 防風, 桔梗, 桂枝, 人蔘, 甘草各一兩, 附子一枚(炮), 大棗十五枚, 生薑五兩

【功效】 扶正祛邪, 表裏兼治

【主治】

1. 主症：產後 發熱惡寒, 頭痛身痛, 無汗而喘, 面赤, 舌質淡紅, 苔白薄, 脈浮而無力.

2. 副症：或四肢欠溫.

【選注】

○ 徐忠可：中風發熱頭痛, 表邪也. 然面正赤, 此非小可淡紅, 所謂面若妝朱, 乃眞陽上浮; 加之喘, 氣高不下也. 明是產後大虛, 元陽不能自固, 而又染以表邪, 自宜攻補兼施, 故以桂, 甘, 防, 葛, 桔, 棗, 薑清其在相之邪, 竹葉清其膽腑之熱, 而以蔘, 附培元氣, 返其欲脫之陽. 然而竹葉名湯, 要知本寒標熱, 膽居中道, 清其交接之緣, 則標本俱安, 竹葉實爲功之首耳.

○ 尤在涇：此產後表有邪而裏適虛之證, 若攻其表, 則氣浮易脫; 若補其裏, 則表邪不解. 竹葉湯用竹葉, 葛根, 桂枝, 防風, 桔梗解外之風熱; 人蔘, 附子

固裏之脫; 甘草, 薑, 棗以調陰陽之氣, 而使其平, 乃表裏兼濟之法. 凡風熱外淫, 而裏氣不固, 宜于此取與.

【病因·病機】

本方은 産後中風 및 陽虛의 證을 治한다.

産後에는 氣血이 크게 虛해지고 쉽게 風邪에 感한다. 風이 太陽의 表를 傷하는 故로 惡寒發熱, 頭痛身疼, 脈浮의 證狀이 보이는데 이는 곧 太陽中風의 證이다. 産後에 陰血이 크게 虛해지면 虛陽이 위로 越하는 故로 面色이 赤이 되는 證狀이 보이는데 이것과 《傷寒論》 211條의 熱邪가 陽明의 經에 鬱하여 宣泄을 하지 못하여 上을 薰하여 面이 赤色이 되는 것과는 不同하다. 그것은 實證이고 이것은 虛證이다; 正氣가 虛하여 肺氣가 약해진 즉 喘이 된다.

方中の 竹葉은 甘淡輕清하여 清熱降火시키고 陽鬱의 熱을 祛하고 陽浮의 勢를 折하여서 急하게 되었을 때 그 標를 治하는 主藥이 된다; 葛根, 防風은 外邪를 解散시키고; 桔梗은 上으로 浮하여 肺氣를 清肅시키고 또 人蔘과 더불어 함께 配伍하면 益氣利肺하여 虛喘을 安정시킨다; 人蔘, 附子는 補虛固陽하고 助正驅邪하며; 桂枝, 甘草, 生薑, 大棗는 營衛를 調和시키고 散風解肌하여 津液과 氣가 빨리 行하게 한 즉 內外가 交濟하여 汗解된다. 諸味가 相伍하여 扶正祛邪하고 表裏를 겹해서 治하는 效能이 있다. 歷代 醫家는 本方에서 附子를 쓰는 것에 대해 不同한 인식에 있었다. 예를 들어 朱肱의 《活人書》에는 本方에 附子를 쓰지 않았고; 張璐의 《張氏醫通》 내에도 또한 附子가 없다; 趙良仁은 《金匱衍義》 속에서 “附子恐後所加, 治頭項強耳”라고 다시 提出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本方은 産後에 中風, 陽虛가 된 者에 補正散邪하는 劑로 만든 것이다.

III. 考 察

候氏黑散은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治第五》篇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에는 “治大風四肢煩重, 心中惡寒不足者”라 하여 中風挾寒을 主

治한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이것은 中風이 挾寒하고 아직 變熱하지 않은 것으로 治法은 法則에 따라 한다. 風이 外를 따라 來寒하여 入하게 되는 情況을 大風이라 하니, 症狀은 四肢煩重하고, 이는 四肢가 諸陽의 本이니, 邪氣가 痹를 일으키는 것이 陽氣가 不運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心中惡寒不足이란 證은 漸欲凌心함이 아니고 무엇인가?”라 하였고, 沈²⁷⁾은 “肌肉臟腑에 直侵하게 되는 것을 大風이라 하는데, 邪氣가 痹를 困케 하니 四肢煩重하고; 陽氣가 虛하여 風이 아직 化熱되지 않아 心中惡寒不足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李⁷⁾는 “大風은 극렬한 邪風을 말한다. 風寒의 邪가 臟腑에 直中한 病이다. 四肢는 諸陽의 本이 되므로 中陽이 不運風寒의 邪로 困해 痹가 되고, 邪氣가 痹를 困케하는 卽 四肢煩重하게 된다. 中陽不足하면 惡寒하고, 不足은 中氣가 虛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니 病因病機에 對해 注家들이 同一한 見解를 表現하고 있다.

方解에 있어서 徐²⁶⁾는 “人蔘, 茯苓, 當歸, 川芎을 써서 補氣血하는 것을 君으로 삼고; 菊花, 白朮, 牡蠣로 養肝脾腎케 하는 效能으로 臣藥을 삼고; 여기에 防風, 桂枝를 加하여 痹着한 氣運을 行하게 하고, 細辛, 乾姜으로 內服한 寒을 驅한다. 이에 兼하여 桔梗, 黃芩으로 肺熱을 開하는 佐藥으로 삼고, 礬石으로 祛濕解毒하고, 心氣를 收澀하고, 酒力으로 周身運行케하여 이것을 使藥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沈²⁷⁾은 “人蔘, 白朮, 茯苓으로 健脾安土하고, 芎藭을 써서 養血하게 하고, 桂枝는 모든 藥性을 引導하여 痹着을 치료하고, 礬石으로 化痰除濕하고, 牡蠣로 水飲養正하고, 桔梗으로 邪氣를 막고 風邪를 제거한다. 黃芩은 風化之熱을 清하게하고, 細辛은 祛風케하고 心腎의 相交하는 氣를 通하게 하고, 酒로 모든 藥性을 周身經絡하는 使藥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며, 李⁷⁾는 “本方은 益氣健脾, 清肝散風을 하는 기초 위에 礬石을 加하면 降氣化痰하여 痰少하여 眩한 症狀이 스스로 그친다. 本方은 礬石이 痰濁上蒙하여 心律失常되는 一體의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提示하여 준다. 本 處方 中 대량의 菊花를 쓴것은 祛風 清熱함이니, 君藥으로 삼아, 《本經》⁴⁾에서 말하는

‘主風、頭眩腫痛，目欲脫，淚出’에 쓰고; 防風으로 臣을 삼아 《本經》⁴⁾의 ‘主大風，頭眩痛，惡風，風邪，目盲無所見’에 쓴다. 菊花와 防風을 配伍하면 表裏의 風을 驅하는데 좋다. 모든 病은 胃氣가 本이 되니, 邪氣가 溙하면 氣가 반드시 虛해지니, 人蔘과 茯苓을 佐로 삼아 益氣健脾하고 土의 氣를 增倍시킨다.; 風氣는 肝에 通하니 當歸, 川芎을 사용하여 益肝血하여 肝氣를 不足하지 않게 한다.; 氣虛濕勝하면 반드시 生痰하니 白朮로 益氣祛濕하고, 桔梗으로 開閉祛痰하고, 礬石으로 善化風痰한다. 風이란 先行而數變하고 來寒하고 來熱하니, 故로 桂枝, 乾薑, 細辛을 써서 祛寒하고, 黃芩으로 清熱하고, 牡蠣로 潛陽하고, 溫酒를 使로 삼아 이 모든 藥을 周身經絡에 達하게 한다. 모든 魚肉과 마늘을 禁하게 하니 熱과 함께 動風함을 꺼리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桔梗의 效能에 對해서는 ‘開提肺熱’, ‘祛風邪’, ‘開閉祛痰’ 등으로 表現하였다. 本條에 對해 “이 主治의 文法이 前後諸條와 달라 사람들이 宋人의 附較라 하는데… 그러나 集源方이 《寒食散發候》에서 말하길 仲景經에 候氏黑散이 있는데 《外臺秘要·風癩門》에도 本方이 실려져 있으나 古今綠驗을 引用해보면 桔梗이 없고 乳石, 礬石이 있다. 方後에 張仲景의 이 方은 桔梗 八分이 있고 鐘乳, 礬石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處方이 隋唐人이 仲景方으로 만든 것이지, 宋人이 附較한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祛風, 除熱, 補虛, 下痰의 法으로 大風을 억제하는데 適當하다. 故로 “治大風, 四肢煩重, 心中惡寒不足者”에 필요한 處方으로 除濕蠲痹, 散風活絡하여 中風, 惡寒發熱, 頭痛目眩, 肢體酸重, 麻木不仁, 手足不遂, 言語蹇澁, 脈浮弦而滑하는 症狀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1)

圖表 1. 候氏黑散

病因病機	風寒之邪直中臟腑而到中風
治則	除濕蠲痹, 散風活絡
主要脈證	證狀 : 中風, 惡寒發熱, 頭痛目眩, 肢體酸重, 麻木不仁, 手足不遂, 言語蹇澁 脈證 : 浮弦而滑

配伍	菊花, 防風 : 祛風清熱, 明目清頭眩, 善驅表裏之風
	人蔘, 茯苓 : 益氣健脾, 培土寧風 當歸, 川芎 : 養肝血, 搜肝氣 白朮, 桔梗, 礬石 : 益脾祛濕, 開閉祛痰, 化風痰 桂枝, 乾薑, 細辛, 黃芩, 牡蠣 : 祛寒, 清熱, 潛陽 溫酒 : 引諸藥達于周身經絡

薯蕷丸은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篇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에는 “虛勞諸不足, 風氣百疾, 薯蕷丸主之.”라 하여 氣血이 不足한데에 風邪를 겸한 虛勞者의 不足症狀을 治한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이 方은 단지 裏急만을 治하는 것이 아니요, 곧 內外가 다 不足함ियो 오직 裏急의 諸不足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黃芪建中湯과 비교해보면 黃芪建中湯은 裏急을 治하니 建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風氣로 인한 百疾까지 있는 경우는 薯蕷丸으로 主하니 또한 오로지 風氣만을 治하는 것이 아니다. 虛勞證에 風氣가 兼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지 못하여 風氣만을 治하는데 뜻을 두면 안된다.”하여 本方이 表裏俱病에 사용되는 것임을 強調하였고, 魏²⁸⁾는 “대개 사람의 氣는 肺에 있고 元陽은 腎에 있으니 이미 消失되면 回復하기 어려우니 모두 後天穀氣의 自益氣生하는 作用에 달려있다. 이 또한 脾胃가 營衛를 通宜할 수 있고 飲食이 잘 消化되어 이를 말미암아 氣血이 回復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仲景은 虛勞諸不足症에 風氣百痛이 兼한 경우 本方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本方의 主된 機能이 脾胃營衛의 通宜에 있음을 말하였다. 李⁷⁾는 “虛勞한 사람은 모든 脈이 空虛하고 쉽게 風邪의 侵犯을 받는다. 이른바 ‘風氣百疾’은 一切의 風氣로 인해 생긴 病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風은 百病의 長이 되어 쉽게 行하고 자주 變하므로 여러 종류의 疾病을 誘發하는 것이다. 病은 者는 體虛하여 風邪가 腦로 침입하면 頭目眩暈이 나타나니 이것이 古典에 말한 ‘風眩’이다. 風邪가 支節百骸, 經絡에 침습하면 곧 指痛麻木하고 腰背強痛하게 되니 이것이 古典에 칭한 바 ‘風痺’이다. 脾胃가 虛弱하여 小食하고 잘 消化시키지 못한 즉 肌瘦가

된다. 氣血이 虛損되면 온몸이 힘이 없고 心悸, 氣短, 自汗하여 잠을 잘 못잔다.”고 하여 虛한 상황에서 風邪가 침범하여 여러 病變을 誘發시킴을 強調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徐²⁶⁾는 “仲景이 四君, 四物로써 氣血을 滋養해주고 麥門冬, 乾薑, 阿膠, 大棗로 脾胃를 補하고, 桔梗, 杏仁으로 肺氣를 開提하며, 桂枝는 陽을 行하고, 防風은 脾를 運化하고, 神麴은 開鬱하며, 大豆黃卷은 宣散한다. 柴胡는 少陽之氣를 上昇시키며, 白朮은 內入한 風을 和한다. 風氣는 全治하지 않아도 精氣가 運化되면 自然히 사라지는 것이니 薯蕷가 가장 많고 또 이로써 湯名을 지은 것이다. 그 性質이 不寒不熱 不燥不滑하여 脾胃를 모두 滋養하는 성질을 취하여 君藥을 삼으니 나머지 藥들은 서로 도와 理氣할 따름이다.”고 하였고, 魏²⁸⁾는 “薯蕷로 主를 삼아 脾胃하게 하니 上損下損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또 人參, 白朮, 乾薑, 茯苓, 大豆黃卷, 大棗, 神麴, 甘草로 돕게 하여 補陰益氣하니 中土의 作用이 健實해진다. 當歸, 川芎, 芍藥, 地黃, 麥門冬, 阿膠는 養血滋陰한다. 柴胡, 桂枝, 防風은 升邪散熱하고, 杏仁, 桔梗, 白朮은 下氣開鬱한다. 오직 虛하고 熱이 있는 자는 滋補之藥을 受納하지 못하므로 邪熱을 除去하고 逆鬱을 開하여 氣血이 平順해진 後에야 補益藥은 먹을 수 있으니 迂遠하다고 버리지 말 것이다.”고 하였으며, 李⁷⁾는 “虛勞不足에 風氣를 낀 사람은 단순히 培保할 수만은 없으니 그러면 邪氣가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서 去風시키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精氣를 거둬 傷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薯蕷丸을 써서 補로 主를 삼고 補하면서 散하여 邪氣를 除去하고 精氣를 회복시키는 것이니 이른바 ‘扶正祛邪’가 이것이다. 薯蕷丸이 補精을 하는 것은 脾胃를 調補하는 것으로 主를 삼는다. 脾胃가 虧損되면 氣血生化之源이 不足해지게 되고 虛損되면 다 治할 수 없다. 이것으로 보면 脾胃를 調理하고 더욱 營養하는 것이 虛勞病을 治療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方 中에 중요하게 사용한 薯蕷는 一명 ‘山藥’이라고 하니 味甘性平하여 脾胃를 補하고 虛損을 補한다. 《本經》⁴⁾에는 ‘中을 傷한 것을 主하고 虛飢한 것을 補하고 寒熱邪氣를 除하

고 補中하며 氣力을 더해주고 長肌肉하며 飲을 強하게 해준다.’라고 되어있다. 또 神曲과 大豆黃卷은 다른 藥을 보조하여 補함과 동시에 消하는 작용도 있으니 補藥이 胃에 障礙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生化之源인 脾胃機能을 강하게 해준다. 地黃, 白芍藥, 當歸, 川芎, 麥門冬, 阿膠는 滋陰養血하고, 補氣藥과 配伍하면 桂枝, 柴胡, 防風, 白朮 등은 升陽達表와 驅除風氣를 목적으로 한다. 杏仁, 桔梗은 氣의 升降作用을 돕는다. 大棗는 養胃生津하며 자주 복용하는 것은 약세를 따라 돕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本方은 調理脾胃하고 氣血을 모두 補하여 內外因이 함께 있는 證을 治하는 組方이라 할 수 있다. 後世의 健脾胃하고 補氣하는 諸方이 다 이를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고 하였으니 桔梗의 效能에 대해서는 ‘開提肺氣’, ‘下氣開鬱’, ‘昇降氣機’ 등으로 표현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의 治療원칙은 脾胃를 調理하는 것이니 脾胃가 健運되면 氣血이 왕성하게 되고 五臟六腑를 滋養하니 精氣가 充滿해지고 病에 대한 抵抗力이 강해져서 外邪가 쉽게 침범하지 못한다. 이것이 本方을 오래도록 낫지 않는 虛損疾患에 쓰이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는 健脾益氣, 消風散邪하여 虛勞, 氣血俱虛, 陰陽失調, 外兼風邪. 症見頭暈目眩, 納食減少, 全身乏力, 心悸短氣, 自汗咳嗽, 腰背強痛, 肌肉消瘦, 微有寒熱, 骨節痠痛, 肌膚麻木, 舌苔薄, 脈虛弱 등을 主治하는 處方으로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2)

圖表 2. 薯蕷丸

病因病機	氣血不足, 兼夾風四肢虛勞諸不足
治則	健脾益氣, 疎風散邪
主要脈證	證狀 : 頭暈目眩, 納呆, 全身乏力, 心悸短氣, 自汗咳嗽, 腰背強痛, 羸瘦微有寒熱, 骨節痠痛, 肌膚麻木, 舌淡苔薄. 脈證 : 脈虛弱
配伍	山藥 : 健脾胃, 補虛損爲主藥 人參, 白朮, 茯苓, 甘草, 乾薑 : 益氣溫陽 神麴, 豆黃卷 : 寓消于補, 使補不碍胃, 振奮生化之源 地黃, 白芍, 當歸, 芍藥, 阿膠, 麥門冬 : 養血滋陰 桂枝, 柴胡, 防風, 白朮 : 升陽達表, 驅除風氣, 杏仁, 桔梗 : 昇降氣機, 大棗 : 養胃生津

桔梗湯은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第七》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에는 “咳而胸滿, 振寒脈數, 咽乾不渴, 時出濁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爲肺癰, 桔梗湯主之.”이라 하여 肺癰으로 膿이 이미 이루어진 所謂 “潰膿期” 또는 “肺癰後期”를 위한 處方이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이는 肺癰이 已成한 것으로 이른 바 ‘熱過于榮, 吸而不出’한 것이다.”라 하였고, 李⁷⁾는 “痰熱이 壅閉하여 肺氣가 不利한 즉 ‘咳而胸滿’하니 이것은 肺癰의 주된 證狀 중 하나이다. 邪熱이 血脈을 傷한 즉 ‘振寒脈數, 咽乾不渴’하는데 이는 陽이 裏에 鬱하여 衛氣가 不行하고 正邪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이른바 ‘陽爲陰閉’이다.”고 하여 邪熱이 肺의 營分까지 침범하여 上記 症狀이 出現함을 설명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徐²⁶⁾는 “邪熱이 肺의 營分에 結하니 故로 苦梗으로 結熱을 내리고 肺氣를 열리게끔 하고, 生甘草로 清熱解毒한다. 이는 또한 開痺하는 法으로 又注에 말하길 다시 복용하면 膿血을 吐한다.”라 하였고, 吳²⁹⁾는 “肺癰이 아직 膿을 이루지 않은 것은 實邪이므로 葶藶之劑로 瀉한다. 이제 이미 潰한 後는 虛邪이니 故로 桔梗의 苦味와 甘草의 甘味로 解肺毒排癰膿한다. 이는 이미 형성된 肺癰을 치료하며 輕하여 不死하는 法이다.”라 하였으며, 尤²⁴⁾는 “此病은 風熱이 壅滯한 것으로 苦梗으로 開之하고, 熱聚하면 成毒하니 甘草로 解之한다. 甘을 苦의 培로 하니 그 힘이 너무 緩한 것 같으나, 실지는 癰膿이 이미 이루어져 正傷毒潰한 時期이므로 峻劑가 아니라도 排繫한 바가 있으니 藥力이 輕하다 하지 않을 따름이다.”라 하였고, 李⁷⁾는 “本方의 桔梗은 肺에 入하여 肺氣를 提하고 癰膿을 排出한다. 生甘草를 培로 사용하여 清火解毒하여 癰膿이 再發하는 것을 防止한다. 이 두 가지는 相伍關係로 養陰利咽하고 宣氣去腐하므로 服用 後에 빠르게 膿血을 排出하므로 方後註에 이르기를 ‘再服, 卽吐膿血也’라 하였는데 이는 疾病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며 桔梗의 效能에 對해서는 ‘下結熱’, ‘開肺氣’, ‘排癰膿’ 등으로 표현하였다.

總括컨대 本方은 肺癰의 膿成하여 장

차 潰하려 하거나 이미 潰하고 正氣가 이미 손상된 경우 解毒扶正의 法을 쓰는 것이니 清熱解毒, 消腫排膿, 養陰利咽하여 肺癰, 咯血膿血, 狀如米粥, 腥臭胸痛, 氣喘身熱, 煩渴喜飲, 舌苔黃膩, 舌質紅, 脈象滑數한 主症과, 咽乾腫痛, 飲食不利, 口噤難言, 痰涎壅塞, 小便黃而量少; 甚則喘不得臥, 面赤身熱한 副症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3)

圖表 3. 桔梗湯

病因病機	肺癰已成, 邪熱客于少陰
治 則	清熱解毒, 消腫排膿, 養陰利咽
主要脈證	症狀 : 肺癰, 咯血膿血, 狀如米粥, 腥臭胸痛, 氣喘身熱煩渴喜飲, 舌苔黃膩, 舌質紅, 咽乾腫痛 脈象 : 滑數
配 伍	桔梗 : 開提肺氣, 排癰腫 甘草 : 清火解毒, 扶正氣

桔梗白散은 《金匱要略·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并治第七》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에는 “咳而胸滿, 振寒脈數, 咽乾不渴, 時出獨唾腥臭, 久久吐膿如米粥者, 爲肺癰.”이라 하여 濕熱火毒肺癰을 치료하니 이는 表寒이 풀리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 水寒과 서로 결합해 內實을 이룬 證治이다. 本方은 桔梗湯과 症狀은 같으나 處方은 다르다. 後者는 肺癰輕症을 치료하고 本方은 肺癰重症을 치료한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이는 卽 앞의 桔梗湯證이다. 그러나 이는 貝母巴豆湯에서 甘草를 去한 것으로 迅利함이 極하다. 대개 그 證의 위태함이 呼吸에 있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함이 不知其數이다. 故로 病人이 強하거나 或 證이 위태함을 확실히 본다면 마땅히 이로써 急히 救할 것이다. 그 峻烈함을 두려워하여 앉아서 죽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였고, 李⁷⁾는 “寒痰冷飲이 肺에 壅滯하여 日久하면 熱로 化하여 氣血을 腐潰시키니 胸滿隱痛, 咳嗽吐黃痰腥臭, 久久吐膿如米粥이 나타나고 肺癰을 이룬다. 膿이 안에서 盛하면 毒氣가 밖으로 나타나니 振寒脈數하고, 寒痰의 邪가 津液이 퍼지지 못하게 하니 咽乾不渴한다. 따라서 本方은 瀉痰排膿하는 것이다.”라 하여 모두 肺癰

의重症에 사용하는 處方임을 論述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沈²⁷⁾은 “桔梗은 開提肺氣하고, 貝母는 清熱化痰涎하며, 巴霜은 峻猛한 熱劑로 急히 그 痛症을 破하여 驅膿下出한다.”고 하였고, 李⁷⁾는 “方中の 貝母는 清熱化痰解毒하고, 巴豆의 氣味는 辛熱하니 破結排膿, 驅毒外出하고, 桔梗은 開提肺氣하고 載藥上行하여 胸肺의 毒을 驅盡한다. 따라서 本方은 邪盛氣實의 肺癰重症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桔梗의 效能에 대해서는 ‘開提肺氣’, ‘載藥上行 以驅盡胸肺之毒’이라 표현하였다.

總括컨대 本方의 證은 濕熱火毒의 肺癰이며 寒痰實邪가 胸脇에 맺힌 것을 攻逐水飲, 溫下寒實하는 것이니 肺癰重症屬寒實者, 症見咳嗽, 咯吐濁唾腥臭之痰, 胸脇心下硬滿而痛, 拒按, 呼吸不利, 不大便, 不發熱, 不口渴, 不煩燥, 舌苔白滑, 脈沈遲或沈緊의 主症과, 胸膈滿悶, 惡寒身痛, 或咳吐膿粘臭痰의 副症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4)

圖表 4. 桔梗白散

病因病機	濕熱邪毒肺癰, 表寒失解內陷, 水寒互結內實
治則	清肺排膿, 攻下積痰, 化水寒, 破結實
主要脈證	症狀 : 肺癰重症, 咳嗽, 咯吐濁唾腥臭之痰, 寒結胸, 無熱症, 舌苔白滑 脈象 : 沈遲或沈緊
配伍	巴豆 : 祛寒泄水, 破結排膿 桔梗 : 開肺利氣 貝母 : 潤肺化痰 疏胸散結, 驅胸肺之毒

排膿散은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治第十八》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主證은 없고 處方構成만 나와 있으며 瘡癰膿將成未成者를 治療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魏²⁸⁾는 “排膿散은 瘡癰의 將成과 未成함에 있어 里를 다스리는 法이다.”고 하였고, 李⁷⁾는 “本方의 證은 熱毒瘀滯가 一處에 聚해서 氣血이 不通하여 熱鬱血瘀하고 蒸腐血肉하여 膿이 成하지 않은 것으로 熱毒이 比較的 成한 證이다. 故로 本方을 使用하여 排膿化毒한다. 대개 氣行하면 血活하고 血行하면 膿不留하며 養血하면 生肌하고 新肉하면 腐肉去한다. 腐去하고 膿消하면 瘡癰이 스스로 낫는다.”고 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尤²⁴⁾는 “枳實은 苦寒하여 除熱破滯의 君藥이고, 芍藥을 얻어 統血하고 桔梗을 얻어 利氣하고 鷄子黃의 甘潤을 얻어 排膿化毒의 本이 된다.”고 하였고, 黃²⁹⁾은 “氣行하면 水行하고 水行하면 膿盡하는 고로 排膿에 桔梗을 使用하여 氣를 開利하여 水를 行하고, 아울러 枳實을 協助를 輔佐받아 固膿을 血化하여 利血하고, 芍藥을 使用하여 血이 이미 腐化되고 成膿하면 반드시 去血하니, 一面排膿으로서 氣分의 實을 除去하며 一面 鷄子黃으로서 血分의 虛를 補한다.”고 하였으며, 李⁷⁾는 “方中の 枳實은 苦寒하여 利氣逐滯하는 고로 鬱熱을 除하는 主藥이며; 桔梗은 肺氣를 開提하여 排膿하여 二味가 相互 配伍하여 氣分의 滯를 行하므로써 排膿을 促進하고; 芍藥은 血脈을 通하고 血痺를 除하고; 鷄子黃은 甘潤하며 護陰滋血한다. 諸味는 相互 協助하여 排膿化毒의 效를 다한다.”고 하였다. 桔梗의 效能에 대해서는 ‘開利其氣以行其水’, ‘開提肺氣而排膿’이라 표현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排膿化毒의 方劑이며 瘡癰膿이 成未成한 者에 使用하여 內癰, 肝癰, 肺癰, 胃癰, 腸癰, 膿將成未成者, 胸脇脹悶, 疼痛拒按, 或 咯吐膿血 或 便膿血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5)

圖表 5. 排膿散

病因病機	瘡癰, 熱毒較盛, 膿將成未成
治則	排膿化毒
主要脈證	治內癰, 如肝癰, 肺癰, 胃癰, 膿將成未成, 脇肋脹悶, 疼痛拒按
配伍	枳實 : 苦寒理氣逐滯而 除鬱熱 桔梗 : 開提肺氣而排膿 芍藥 : 通血脈除血痺 鷄子黃 : 甘潤護陰滋血

排膿湯은 《金匱要略·瘡癰腸癰浸淫病脈證治第十八》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主證은 없고 處方構成만 나와 있으며 內癰 膿成初潰의 症狀를 治療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甘桔은 肺氣를 開提하고 薑棗는 中上焦의 營衛를 調和하여 內氣를 通利하고 膿을 凝滯하지 않는다. 위의 兩方은 瘡癰이 散하지 않는 것을 治療하는 方으로 단지 腸癰腫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고 하였고, 卞³⁰⁾은 “排는 斥이다. 膿은 血肉이 變化한 所致이다. 前方(排膿散)은 枳實, 赤芍藥으로 桔梗을 도와주어 大腸으로 다달아 泄氣破血하여 膿을 斥出한다. 後方(本方)은 甘, 桔, 姜, 棗로 上焦를 따라 肺氣를 開提하여 營衛를 調和하고 氣行하게 하면 膿이 스스로 下한다. 證으로 方을 使用하니 學者는 마음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였으며, 陳¹⁷⁾은 “方中에 桔梗, 生薑의 辛味를 取하고 大棗, 甘草의 甘味를 取하여 辛甘은 發散하니 陽이 되어 毒으로 하여금 陽으로 化하여 出하게 되어 排하는 妙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李⁷⁾는 “方으로 症狀을 推測하면 內癰 膿成初潰에 使用한다. 血敗肉腐하고 癰膿初潰外泄하고 咯吐膿血腥臭하며; 熱毒癆結, 肺損絡傷하는 故로 때때로 咯血하며; 膿毒蘊肺, 肺氣不利하는 故로 喘息不得臥하며; 熱毒內蒸하는 故로 身熱하고 面赤하며 煩渴喜飲한다. 上述한 것을 綜合하면 本方은 內癰膿成初潰에 사용하는 故로 治하는 것은 排膿解毒을 治法으로 한다. 膿이 이미 形成되면 마땅히 排膿이 要旨가 되며 이때가 治療의 關鍵이며 膿液을 일찍 排除하여야 한다. 同時에 熱毒이 盛하면 주의해서 解毒해야 한다.”고 하였다. 桔梗의 效能에 대해서는 ‘宣肺理氣排膿’이라 표현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熱毒盤踞하여 內癰膿成初潰한 것을 清熱解毒, 消腫排膿시켜주어 肺癰, 喉癰, 喉痺, 膿成初潰, 咯吐膿血腥臭, 或咯血, 氣滯, 惡寒身熱, 煩渴喜飲, 舌質微紅, 苔白薄 或 黃薄, 脈數의 主症과 蒂丁兩側腫脹, 飲食不利, 口噤難言, 痰涎壅塞, 甚則喘息不得臥, 面赤의 副症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6)

圖表 6. 排膿湯

病因病機	熱毒盤踞, 內癰膿成初潰
治 則	清熱解毒, 消腫排膿
主要脈證	症狀 : 內癰, 膿成初潰, 咯吐膿血腥臭, 惡寒身熱, 煩渴喜飲, 舌質微紅, 苔薄白 或 薄黃 脈象 : 數 或 滑數
配 伍	桔梗 : 宣肺理氣排膿 甘草 : 清熱瀉火解毒, 緩急迫 姜棗 : 調和衛氣

竹葉湯은 《金匱要略·婦人產後病脈證治第二十

一》篇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으로, 原文에는 “產後中風, 發熱, 面正赤, 喘而頭痛, 竹葉湯主之.”라 하여 產後中風 및 陽虛의 證을 治한다. 이에 대해 徐²⁶⁾는 “中風發熱頭痛은 表邪이다. 面이 正赤하면 아닌 것으로, 이른바 面이 만약 晝朱와 같으면 이에 眞陽이 上浮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喘함은 氣高不下함이다.”고 하여 戴陽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尤²⁴⁾는 “이 產後에 表에 邪가 있고 裏는 虛한 證에 만약 그 表를 攻하면 氣가 浮하여 쉽게 脫하고; 만약 그 裏를 補하면 表邪가 解하지 않는다.”고 하여 本條의 表裏兼病의 難治에 대해 설명하였고, 李⁷⁾는 “產後에는 氣血이 크게 虛해지고 쉽게 風邪에 感한다. 風이 太陽의 表를 傷하는 故로 惡寒發熱, 頭痛身疼, 脈浮의 證狀이 보이는데 이는 곧 太陽中風의 證이다; 產後에 陰血이 크게 虛해지면 虛陽이 위로 越하는 故로 面色이 赤이 되는 證狀이 보이는데 이것과 《傷寒論》211條의 熱邪가 陽明의 經에 鬱하여 宣泄을 하지 못하여 上을 熏하여 面이 赤色이 되는 것과는 不同하다. 그것은 實證이고 이것은 虛證이다; 正氣가 虛하여 肺氣가 약해진 즉 喘이 된다.”고 하여 面赤의 虛實鑑別을 強調하였다.

方解에 있어서 徐²⁶⁾는 “產後에 大虛하고 元陽이 능히 스스로 固하지 못하고 또 表邪에 感染되 으면 마땅히 攻補를 兼施해야 하는 故로 桂枝, 甘草, 防風, 葛根, 桔梗, 大棗, 生薑으로써 그 上에 있는 邪를 清하게 하고, 竹葉은 그 膽臟의 熱을 清하게 하고, 人蔘, 附子으로써 元氣를 培하면 그 脫하고자 하는 陽을 返한다. 그래서 竹葉湯의 要是 本寒標熱이고 膽이 中道에 居하므로 그 交接의 緣을 清하게 하면 標本이 모두 安定되고 竹葉이 實로 攻의 首가 된다.”고 하였고, 尤²⁴⁾는 “竹葉湯은 竹葉, 葛根, 桂枝, 防風, 桔梗을 써서 外의 風熱을 解하고; 人蔘, 附子は 裏의 脫을 固하고; 甘草, 生薑, 大棗으로써 陰陽의 氣를 調하게하여 그 平을 받들게 되므로 이에 表裏를 兼濟하는 法이 된다. 무릇 風熱外淫을 받고 裏의 氣가 不固한 者는 마땅히 이것을 淸한 즉 與하다.”고 하였으며, 李⁷⁾는 “方中の 竹葉은 甘淡輕清하여 清熱降火시키고 陽

鬱의 熱을 祛하고 陽浮의 勢를 折하여서 急하게 되었을 때 그 標를 治하는 主藥이 된다; 葛根, 防風은 外邪를 解散시키고; 桔梗은 上으로 浮하여 肺氣를 清肅시키고 또 人蔘과 더불어 함께 配伍하면 益氣利肺하여 虛喘을 안정시킨다: 人蔘, 附子是 補虛固陽하고 助正驅邪하며; 桂枝, 甘草, 生薑, 大棗는 營衛를 調和시키고 散風解肌하여 津液과 氣가 빨리 行하게 한 즉 內外가 交濟하여 汗解된다. 諸味가 相伍하여 扶正祛邪하고 表裏를 兼해서 治하는 效能이 있다. 歷代 醫家는 本方에서 附子を 쓰는 것에 대해 不同한 인식이 있었다. 例를 들어 朱肱의 《活人書》에는 本方에 附子を 쓰지 않았고; 張璐의 《張氏醫》 내에도 또한 附子가 없다; 趙良仁은 《金匱衍義》에서 '附子恐後所加, 治頭項強耳'라고 했다."고 하였으니 桔梗의 效能에 대해서는 '解外之風熱', '清在上之邪', '清肅肺氣' 등으로 표현하였다.

總括하면 本方은 産後에 中風, 陽虛가 된 者에 補正散邪하는 것으로 扶正祛邪, 表裏兼治하여 産後, 發熱惡寒, 頭痛身疼, 無汗而喘, 面赤, 舌質淡紅, 苔白薄, 脈浮而無力의 主症과, 或四肢欠溫의 副症을 主治한다. 以上을 定理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7)

圖表 7. 竹葉湯

病因病機	産後中風兼陽虛
治 則	扶正祛邪, 表裏兼治
主要脈證	症狀 : 産後發熱惡寒, 頭痛身疼, 無汗而喘, 面赤, 舌質淡紅, 苔白薄 脈象 : 浮而無力
配 伍	竹葉 : 甘淡輕清하므로 清熱降火, 祛鬱陽之熱 葛根, 防風 : 解散外邪 桔梗 : 上浮清肅肺氣 人蔘, 附子 : 補虛固陽, 助正驅邪 桂枝, 甘草, 生薑, 大棗 : 調和營衛, 散風解肌

以上에서 《金匱要略》 중 桔梗이 사용된 7개의 處方에 대해 各家의 注를 病證 및 方解 中心으로

考察해 보았으며 桔梗의 所在方名, 病證, 病因病理, 劑量, 效能 및 主治를 圖表化 하면 다음과 같다.(圖表 8)

圖表 8. 桔梗의 效能 및 主治

桔梗所在方名	病證	病因病理	劑量	效能 및 主治
侯氏黑散	中風	風寒之邪直中臟腑而到中風	八分	開閉祛痰 治氣虛濕勝生痰
薯蕷丸	虛勞	氣血不足, 兼夾風 四肢虛勞諸不足	五分	開提肺氣, 昇降氣機 治氣血虛挾風
桔梗湯	肺癰	肺癰已成, 邪熱客于少陰	一兩	下其結熱, 開提肺氣 治風熱所塞, 邪熱結于肺之營分
桔梗白散	肺癰	濕熱邪毒肺癰, 表寒失解內陷, 水寒互結內實	三分	開提肺氣, 截藥上行 治胸肺之毒
排膿散	瘡癰	瘡癰, 熱毒較盛, 膿將成未成	二分	開利其氣以行其水, 開提肺氣而排膿 治熱毒瘀滯, 氣血不通, 蒸腐血肉
排膿湯	內癰	熱毒盤踞, 內癰膿成初潰	三兩	宣肺理氣排膿 治膿毒蘊肺, 肺氣不利
竹葉湯	産後中風	産後中風兼陽虛	一兩	解風熱, 清肺氣 治中風發熱頭痛

IV. 結 論

《金匱要略》 중 桔梗이 사용된 7개의 處方의 病證 및 桔梗의 效能을 病理的으로 鑑別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侯氏黑散은 風寒之邪가 直中臟腑하여 中風에 도달한 것을 除濕蠲痹, 散風活絡시켜주는 處方으로, 여기서 桔梗은 開閉祛痰하여 氣虛濕勝生痰한 것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2. 薯蕷丸은 氣血不足에 兼風하여 四肢虛勞諸不足한 것을 健脾益氣, 疎風散邪시켜주는 處方으로, 여기서 桔梗은 開提肺氣, 昇降氣機하여 氣血虛挾風한 것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3. 桔梗湯은 肺癰이 已成하여 邪熱이 少陰에 客한 것을 淸熱解毒, 消腫排膿, 養陰利咽시켜주는 處方으로, 여기서 桔梗은 下其結熱, 開提肺氣하여 風熱所壅, 邪熱結于肺之營分한 것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4. 桔梗白散은 濕熱邪毒한 肺癰이 表寒失解內陷, 水寒互結內實한 것을 淸肺排膿, 攻下積痰, 化水寒, 破結實시켜주는 處方으로, 여기서 桔梗은 開提肺氣, 載藥上行하여 胸肺之毒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5. 排膿散은 瘡癰의 熱毒較盛하여 膿將成未成한 것을 排膿化毒시켜주는 處方으로, 여기서 桔梗은 開利其氣以行其水, 開提肺氣而排膿하여 熱毒瘀滯, 氣血不通, 蒸腐血肉한 것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6. 排膿湯은 熱毒盤踞하여 內癰膿成初潰한 것을 淸熱解毒, 消腫排膿시켜주는 處方이며 여기서 桔梗은 宣肺理氣排膿하여 肺氣不利, 膿毒蘊肺한 것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7. 竹葉湯은 産後中風에 陽虛를 兼한 것을 扶正祛邪, 表裏兼治시켜주는 處方이며 여기서 桔梗은 解風熱, 淸肺氣하여 中風發熱頭痛을 治하는 效能을 지닌다.

參 考 文 獻

1. 中國中醫研究院 編: 正統金匱要略, 醫學研究社, pp31-38, 116-118, 170-172, p176, pp381-383, 414-416 1983.
2. 殷光周 外: 金匱要略手冊, 科學技術文獻出版社, pp348-349, 386 1988.
3.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 本草學, 永林社, pp460-461 1992.
4. 胡洋吉 編: 神農本草經備要, 文笙書局, p169 中華民國 74年.
5. 李棟熙 外: 桔梗의 規格化와 Platycodin D의 藥效에 關한 研究, 慶熙 15(1) p91 1992.
6. 李克光: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pp.133-134, 168-169, 204-205, 534-536, 583-584

- 1989.
7. 李文瑞 主編: 金匱要略湯證論治,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8. 李克光, 張家禮: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21-122, 161-163, 188-190, 194-195, 592-593, 647-649 1995.
9. 陳修園: 金匱要略淺註, 太平書局出版, pp36-38, 66-68, 172-173, 187-188 1975.
10. 李東建: 國譯金匱要略, 書宛堂, p90, pp124-125, 128-129, 264-265, 286-287 1996.
11. 李克光 外: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57-58, 72-73, 85-86, p88, pp221-222, 243-244 1989.
12. 成都中醫學院: 金匱要略選讀,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2, 51, 59, 66, pp175-176, p193 1981.
13. 王建平, 史定文 外: 金匱要略自學輔導, 中醫古籍出版社, p42, 63, 65, 166, pp182-183 1988.
14. 杜雨茂, 張聯惠: 金匱要略闡釋, 醫聖堂, pp125-129, 213-215, 220-222, 548-549, 599-600 1994.
15. 蔣先德: 金匱要略, 春秋出版社, pp50-51, p73, 75, 181, pp205-206 1988.
16. 趙以德, 周揚俊: 金匱玉函經二註, 人民衛生出版社, pp82-84, p126, 128, pp314-315, p336 1990.
17. 陳修園: 金匱方歌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21-22, 41-42, p45, pp109-110, 122-123 1980.
18. 文棟 校注: 金匱要略方論, 中國書店出版, pp27-28, p43, 45, 108, 118 1993.
19. 楊宏仁: 金匱要略重編, 世一書局, p56, 79, 242, 260 中華民國 72年 12月.
20. 何任 外: 金匱要略語譯, 人民衛生出版社, pp32-33, 50-51, 52-53, p129, pp140-141 1990.
21. 楊向輝: 金匱要略注釋, 國立編譯官, 正中書局印行, p64, pp97-99, p246, 263 1994.
22. 呂志杰: 金匱雜病論治全書, 中醫古籍出版社, pp78-80, 157-158, 162-166, 420-421, 464-465 1995.
23. 宋書功: 金匱要略廣注校註, 人民衛生出版社, pp89-91, 245-246, p264 1994.

24. 尤在涇: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p32, pp50-51, p52, 137, 148 1992.
25. 程淋: 金匱要略直解,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26. 徐忠可: 金匱要略論注,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27. 沈明宗: 金匱要略編註,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28. 魏念庭: 金匱要略本義,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29. 黃樹曾: 金匱要略釋義,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30. 王子接: 絳雪圓古方選注, 轉引自 《金匱要略湯證論治》, 李文瑞, pp107-112, 176-180, 229-234, 247-252, 656-661, 736-739 1993.
31. 吳謙: 醫宗金鑑, 大成出版社, pp713-737, 1983.
32. 金成培: 桔梗의 精油成分에 關한 研究, 本草 11(1), 1996.
33. 辛正植: 桔梗의 種類別 SAPONIN 含量差異에 關한 研究, 圓光 3(1), 1993
34. 韓在洙: 桔梗湯 및 千金葦莖湯加味方의 效能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 15(1), 1992.
35. 李光浩: 桔梗湯과 加味桔梗湯의 抗癌效果와 免疫反應에 關한 研究, 病理 10(1), 1996.